

‘무산 위기’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재점화

광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16일 대구시의회도 본회의 상정 의결시 본격 공동유치 준비 속도 기재부 심의 후 내년 신청서 제출

광주·대구시의회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던 2038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재점화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동유치 파트너인 대

구시도 오는 16일 의회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 의결시 두 도시 공동유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의회가 공동유치에 대해 합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대구시 의회에서도 변수 없이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 도시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대한체육회에 국제종합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치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 최

중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공동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 차원에서 지난 2021년 5월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했다. 그해 11월 유치준비위원회를 꾸려 의욕적으로 유치에 나섰지만 지난해 10월 공론화 부족과 여론조사 부실 등으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를 다시 하는 등 보고서를 보완해 지난달 26일 시민보고회를 열고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 개최되며 OCA

회원 45개국, 1만5000여 명이 40여개 종목에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다. 국내에서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 도전이다.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사업비는 국비 3246억원, 지방비 593억원, 사업수입 2978억원 등 총 1조817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광주 시민 506명, 대구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7.9%가 찬성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에서 보완

요구했던 부분을 부족하나마 보완했고, 그 결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통과돼서 감사드린다”며 “아시안 게임은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고 대구와 광주 같이 한다는 점까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만큼 대구시와 협의해 공동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준비하는 등 유치 작업에 나서겠다”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불법주차 막는다

시, 차량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대형 차량의 불법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대형 화물차와 버스·건설 장비·캠핑카 등의 불법 장기 주차로 주차 공간이 부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3월 초까지 주차장 일부 구역(P5·P6·P7)에 2.3m 규

모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적법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진입이 필요한 대형차량과 연타이 달지 않는 무단 방치 차량의 이동을 고려, 제한높이 조절이 가능한 시설물도 4곳에 설치한다.

광주시는 이번 차량 높이 제한 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장기 주차와 방치된 차량의 이동주차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배부하는 한편 현수막을 게재하며 관련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후로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차량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를 계기로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기본계획 보고회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6일 동구인문학당에서 ‘무등 인문론, 무등캠핑’ 등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무등산 인문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박필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논쟁보다 기능강화 기회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론이 이슈가 된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 분리보다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사진)은 6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논쟁보다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차례 통합과 분리를 반복 해온 광주전남연구원은 8년 만에 다시 분리의 갈림길에 섰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이 갈 길을 제대로 찾고, 지역 최상위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원 문제 진단 △연구원 역할·기능 강화 대책 마련 △연구원 분리 결

정 시 충분한 소통·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통합 운영에 대한 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조개 운영할 경우 광주시·전남도의 단순 용역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연구 기능을 총괄하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연구원이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고흥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한우 2500마리 사육 규모 시설 가축 분뇨·악취·질병 해소 기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고흥 한우 스마트 축산 단지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와 고흥군은 가축 분뇨 악취,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 발전 모델 제시를 위해 지난해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외부전문가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대면 발표 등 3차례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범단지는 고흥 도덕면 신양리 일원 간척지 16.7ha 부지에 들어선다.

25개 농가에서 (가칭)고흥한우스마트 팜영농법인을 구성해 총 25동 한우 2500마리 규모의 스마트축산 시설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먼저 부지 정리, 도로, 우수, 전기 등 기반 조성과, 관제·교육센터 시설 설치에 95억원(국비 62억5000만원·지방비 3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역·

기타 시설은 기존 정책사업 예산 245억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고흥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첨단 시설·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최적화된 사육 환경을 조성해 기존 축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가 가축분뇨 악취 문제, 질병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친화 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한우고기 수출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이광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지연 행정기관 나서야”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광일 의원(여수1·사진)이 제368회 임시회 일차리 경제본부 업무보고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도 개발은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전남 관광 활성화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조성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에

셋그룹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경도 일원 2.15(62만평) 부지에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상업시설 등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진지한 의견 교환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관광객 증가 마중물... ‘마이스행사’ 지원 확대

3개국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여시 2천만→3천만원 지원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대를 위해 도내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이스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s), 전시·복합이벤트(Convention), 산업전시회(Exhibition)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 기업 임직원이나 관광객을 단기간 대규모로 유치하는 행사를 말한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일 이상 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협회·기업·기관 등이다. 특히 3개국 이상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과 호남권 마이스 연계 지원 인센티브도 신규로 도입한다.

개최지가 미확정된 기관·단체의 국제행사를 전남으로 유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 기획사(PCO), 여행사 등의 국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

을 활용한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함께 시행하는 호남권 마이스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마이스 행사 후, 타 시·도에서 1박 이상 관광 시 숙박지 시·도에서 별도 인센티브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행사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만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행사 지출액을 함께 반영해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남도 누리집(http://jeonnam.go.kr/) 공고문과 전남관광재단 누리집(http://jinto.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